



서울

● 12월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(전년동월대비) -2.9%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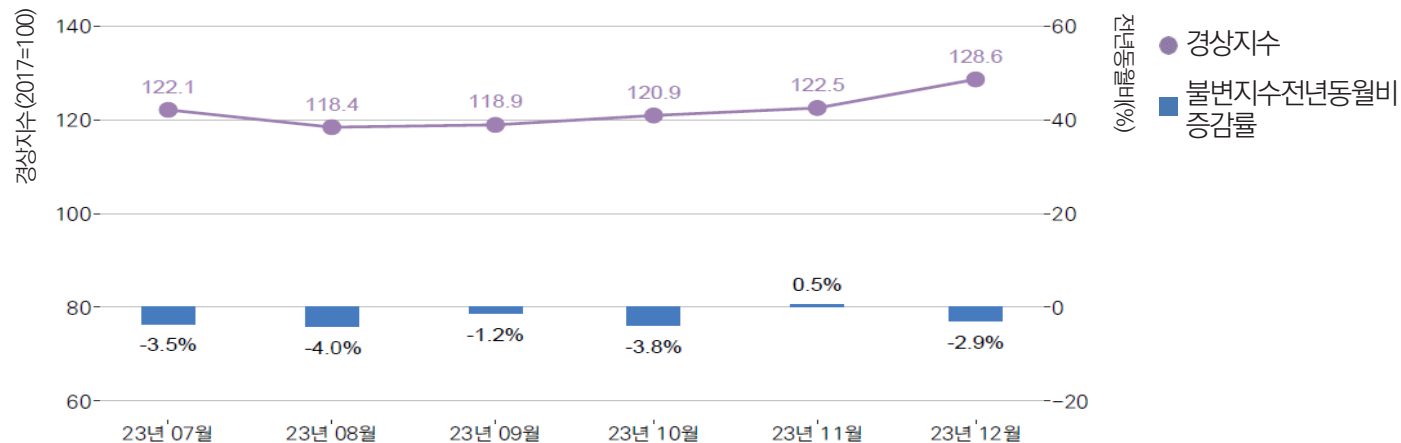
- 전년동월대비 -2.9% = 소매업의 기여도 -1.9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-1.0%p
(각 업종별 기여도 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)

※관련 설명은 부록의 '기여도'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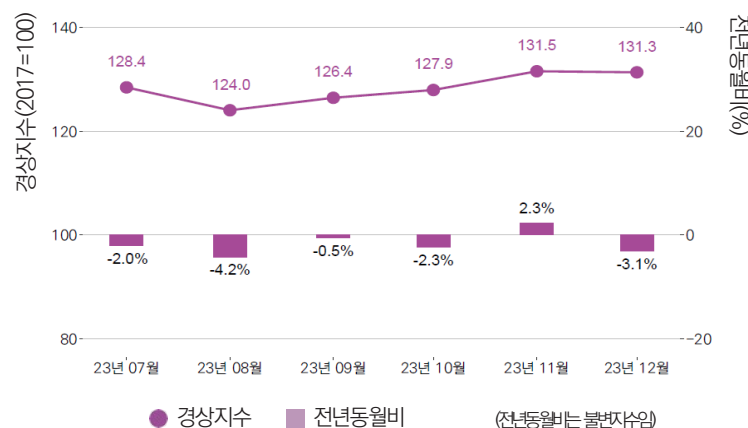
● (전년동월대비) 소매업 소비경기지수는 -3.1% 감소,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는 -2.5% 감소

- 12월 서울 소매업 하위업종의 소비경기지수는 기타가정용품, 연료업, 기타상품, 무점포 소매를 제외한 5개 업종이 감소
 - 하위 업종들 중, 기타가정용품(6.9%), 연료업(6.3%), 기타상품(1.2%), 무점포 소매(0.4%) 순으로 소비 증가
 - 반면, 가전제품(-32.6%), 정보통신(-32.6%), 의복·섬유·신발(-10.1%), 종합소매(-2.4%), 음식료품·담배업(-2.4%), 문화·오락·여가(-0.6%) 순으로 감소
- 12월 서울 숙박·음식점업은 주점·커피전문점업(2.4%)이 증가하였고, 음식점업(-3.6%), 숙박업(-3.6%)은 감소
 - 전월대비 숙박업(1.7% ⇒ -3.6%)은 감소로 전환, 음식점업(5.0% ⇒ -3.6%)은 감소세 축소, 주점·커피전문점업(2.4% ⇒ 2.4%)은 비슷한 수준

| 서울 소비경기지수



| 서울 소매업 소비경기지수



| 서울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

